

# 초등학교 문화유산 교육 현황과 방향 제언

## - 교육 과정 분석 및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다원\*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veritas2@gnue.ac.kr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이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는 문화유산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의거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개 교과서를 살펴보고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는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를 시민성 함양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 교육에서 무엇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학생 환경, 지역 사회 환경, 교과 내용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이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게 지속 가능 발전 개념과 연계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역별 정체성, 문명 간 대화와 이해, 창의성의 원천 등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의 토대가 된다. 넷째,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단계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성패는 교사 연수에 달려 있다. 다섯째, 문화유산 교육을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향유하고 보호하고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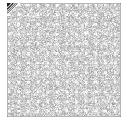
주제어 문화유산, 세계유산, 문화유산 교육, 지속 가능 발전, 초등 교육

투고일자 2021. 9. 9. ● 심사일자 2021. 10. 19. ● 게재확정일자 2021. 10. 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1. 서론

###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문화유산과 교육이 제도적 수준에서 결합하여 실행된 것은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부터였다(UNESCO 1972; Merillas & Rodriguez 2018). 이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과거 사람들의 문화적 기념물로서의 문화재에서 현재 사람들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뿌리이자, 향유되고 가꿔져 새로운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로까지 전승해 주어야 할 유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념물로서 보존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활 양식, 사회적 관습, 사회적 지식과 기술, 사람들의 신념 체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했다(Merillas & Rodriguez 2018).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다. 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대상인 문화재에서 '보호와 향유'의 대상이자 인류가 남긴 유산으로 미래 세대로 전승되어야 할 '유산'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유네스코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과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2003)을 채택하여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 사회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확대를 촉진하였다(UNESCO 2003). 유네스코가 문화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으로 개념을 전환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유산 현장'을 제정·공포하면서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인식을 전환했으며,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문화유산 보존·전승의 의지와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에 따라 지역 문화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과 고유한 지역성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다(이현경 외 2019).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화유산이 사람들의 문화적 향유와 문화적 정체성 형성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2020년

'문화유산 현장'을 개정·선포하였는데,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일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 세대의 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면을 강조하였다(문화재청 2020).

문화유산은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 문화의 상징'(김용구 2018)으로만 인식되다가 1990년대 들어 국가의 상징물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원으로, 그리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한 향유의 대상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역시 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이 제시되면서 문화재청은 2006년 문화재 교육을 시작했다. 문화유산 정책에서의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된다(김용구 2018).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주어 유산의 보호에 적극적인 책임 의식을 갖게 하고(Copeland 2004)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이현경 외 2019). 문화유산 교육이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전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이다. 학습자는 또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의 모습을 전망할 수 있다(Barghi 2017). 나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문화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선조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 문화유산은 사회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실제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삶의 연계성을 지원한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문화유산 교육을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의 세부 목표인 SDG 4.7은 글로벌 교육 의제로 세계 시민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등을 제안하며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문화유산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맥락이다. 세계 시민 교육이나 문화 다양성 교육의 관

점을 문화유산 교육에 적용한다면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의 문제, 세계 시민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건수 2020).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 문화유산 교육은 1946년에 처음 만들어진 교육 과정, 즉 초등학교 <교수요목> 이래 역대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왔다. 각급 학교별 교육 과정은 지역 사회 및 국가의 주요 문화유산이 지역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시민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을 기존 교육 과정에 통합하여 교육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문화유산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행심(2010)은 제7차 교육 과정의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전통문화 교육 콘텐츠와 교수법을 고찰했고, 유네스코 전문가인 허권(2012)은 지속 가능 발전의 토대, 창의성의 근원, 문화 및 종 다양성의 핵심, 평화와 문명 간 이해 증진의 상징으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러내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한 바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 나아가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이지혜·김정화 2018), 문화유산 교육은 국민 정체성 함양을 넘어 문화적 권리와 문화유산 향유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제안(김용구 2018)도 있었다. 현행 문화유산 교육이 기존의 문화재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에 치중되었다면 이제는 문화재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화재를 단순한 국가적 자산으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만들어가는 문화유산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즉 문화유산의 의미는 사회적 과정으로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한다(이현경의 2019). 그런 점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대상별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일반 시민, 대학생, 실무자 등 대상자에 따른 문화유산 교육의 차별적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노경민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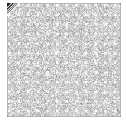
문화유산 교육의 발전적 전환을 요구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화유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유산 교육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 연구로서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문화유산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초등 영역에 한정하였으며 교과 교육 과정과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경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초등 교육에서 현황 분석 연구는 향후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 영역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유산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 및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문화유산 교육 현황을 분석할 기준을 정리하였다.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체육 교과를 중심으로 2015 개정 초등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10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교육 과정 분석은 2015 개정 초등 교육 과정의 3~4학년군과 5~6학년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체육의 5개 교과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교사 설문 조사는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교육 환경의 편차를 고려하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교육청별로 1~2인씩 총 10명을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 1인, 광주광역시 1인, 대



전광역시 1인, 경기도 2인, 전라북도 1인, 전라남도 1인, 경상남도 1인, 제주도 1인, 강원도 1인이다. 설문 조사는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은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이해, 문화유산 교육에의 접근 방식, 문화유산 교육의 장애 요인,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사항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내용을 대상으로 연구자 중심의 분석과 해석에 기반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문화유산 교육의 유형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교육을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문화재를 가꾸고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를 향유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문화재청 2007; 김용구 2018에서 재인용).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가치 인식, 보호, 향유가 문화유산 교육의 주요 내용임을 보여준다(그림 1).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특성 파악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문화재 학습을 개인의 삶과 연계하면서 개인의 문화적 향유뿐 아니라 문화 창조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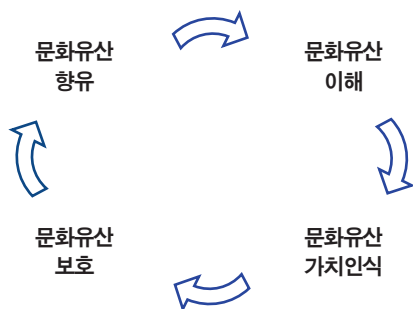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유산 교육의 순환 구조(출처: 문화재청 2010: 33)

그래서 문화유산 교육은 내용 전달 중심에서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문화유산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의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김용구(2018)는 기존의 문화유산 교육과 새로운 문화유산 교육을

<표 1>처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과거와의 관계, 교육 방법, 교육 목적, 학습 대상자, 해석의 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보여준다. 이런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 문화유산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문화유산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연결 짓고 해석하고 향유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표 1 기존의 문화유산 교육과 새로운 문화유산 교육(출처: 김용구 2018)

구분	기존의 문화유산 교육	새로운 문화유산 교육
과거와의 관계	과거 지식의 확장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 확보
교육 방법	교수자 중심의 내용 전달	학습자 중심의 대상 해석
교육 목적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획득	문화유산의 보호·향유
주요 학습자	관광객, 방문자	지역 주민
공간 범위	유물 또는 유적의 점유 공간	지역, 생활 공간
해석 방식	국가주의적 해석, 전문가 중심 해석	개인적·일상적 해석, 해석의 민주화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학교 교육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교육은 <그림 2>처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cultural heritage)’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서는 문화유산의 위치·역사·발달 배경·가치 등을 학습하여 문화유산 자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 내재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유산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cultural heritage)’이다. 유산과 교육의 연계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유산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타인, 지역 사회, 국가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스스로 유산의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다. 여기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등을 포함한다. 셋째,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cultural heritage)’이다. 이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 평화, 인권, 환경, 문화, 시민성 등을 인식하고 내면의 가치를 형성하는 교육이다. 특히 오늘날 문화유산 교육이 주목받는 부분이며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이 지향해야 할 영역이다. 문화유산을 통



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행해질 때 문화유산은 창의성의 원천, 지속 가능 사회를 열어가는 매체, 사람들의 삶에서 향유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유산에 의한 교육(education by cultural heritage)’이다. 이는 각 교과 또는 주제 영역의 학습을 위해 관련 문화유산을 제재(題材) 또는 내용 요소로 활용하는 교육이다. 문화유산은 학습자의 지역 사회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유산 활용 학습은 학습자의 주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자 생활 중심 교육과 지역화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사회 문화유산에 의한 학습은 학습자의 학습력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 학습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 문화유산 교육의 유형

그간 문화유산 교육은 사회과, 미술과, 음악과, 체육과, 국어과 등 교과 내 내용에 기반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과 ‘문화유산을 위한 학습’ 유형으로 이뤄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유산을 통한 학습’, ‘문화유산에 의한 학습’ 유형의 활용은 교과 내 학습뿐만 아니라 교과 간 통합에 의한 주제 학습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비교과 연계 수업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유산 교육 유형의 활용은 교과·비교과 연계 등 더 넓은 범위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조상의 지혜와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고 이어갈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와 잠재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문화유산 교육에의 접근

유네스코는 무형유산을 포함한 세계유산 교육의 방향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UNESCO 2002[1998]).

첫째, 세계유산 교육의 목적은 자국 또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찾을 뿐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유산의 보호와 보존,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은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차원을 모두 강조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세계유산의 가치와 관련 주제는 통합적이기 때문에 세계유산 교육은 다학문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유산 교육 방법은 교실 안에서의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학습, 박물관 견학, 역할 놀이, 인터넷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관련 활동지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세계유산에 대한 학습은 세계유산에 내재한 의미와 가치를 학습하는 것으로 세계유산과 정체성, 세계유산과 관광, 세계유산과 환경, 세계유산과 평화 등을 주제 학습의 예로 제시하고, 각 주제별로 적합한 유산을 선정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교육 제안은 우리의 문화유산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문화유산 교육은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으로 실시한다. 문화유산 교육은 한 교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특정 단원을 설정하여 관련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할 수도 있지만 여러 교과에서 교과 내용과 연계하거나 비교과 영역에서 주제 학습으로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은 여러 교과 내용과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될 때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 문화유산을 위한 교육, 문화유산에 의한 교육이 균형 있게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유산 교육은 국제 이해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환경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등의 교과 외 교육과도 관련성을 갖고 있다(Estepa et al. 2005; Gime'nez et al. 2008, 2015에서 재인용). 그래서 교과와 연계하여 교과 시간에 실시할 수도 있지만 교과 간 통합을 통해 주제 학습으로 비교과 시간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사회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역 문화유산 교육이라고 한다. 지역 문화유산 교육은 교육 소재인 문화유산과 학습



의 주체인 학습자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김용구 2018). 지역 사회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은 학생이 각자의 생활권 안에서 직접 유산을 방문하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더 가깝게 상호 작용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을 보존과 기억의 대상에서 보호와 향유의 대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학습’, ‘문화유산 행하기(경험과 실천하기)’ 학습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 박물관 교육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박물관의 공간 범위가 확장되고 있을뿐더러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유물 중심의 전시와 전문가 중심의 해설에서 관람객과 공동체가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용구 2018). 이는 지역 사회 기반 문화유산 교육의 적극적 실천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셋째, 문화유산 교육은 학습자가 주도하는 학습을 지향한다.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주도적 해석과 향유, 창의 활동과 실천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의, 토론, 탐구, 실습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토의, 토론, 탐구 활동 등은 유산에 대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호하고 계승할 것인지 등을 탐색하는 데 유용성을 지닌다.

넷째, 현장 조사 학습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은 유형과 무형 모두 장소성을 지닌다. 유형 문화유산은 해당 지역의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무형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유산이 발달한 곳의 환경과 주변 지역의 연계성 등은 문화유

산 발달 배경을 파악하고 현재 문화유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장 조사 학습은 해당 문화유산의 의미와 맥락을 체감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나아가 문화유산 관찰을 통해 유산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고 유산과 내적인 대화를 이어갈 기회가 된다. 유산에 담긴 가치와 정체성, 환경, 지역민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 가능성 관점에 기반하여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하면서 문화적으로 연관성이 깊어진 지식과 기술, 가치를 담고 있다. 해당 지역의 자연과 생태계의 맥락에서 발전해온 문화유산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UNESCO 2015). 과거 조상들의 지혜·지식·기술·가치가 현재의 문화를 만들어갈 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연 환경과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 방식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도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섯째, 비판적·문제해결적·참여적 관점에 기반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문화유산 교육은 학습자가 수용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주도성을 갖고 적극적 관심과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유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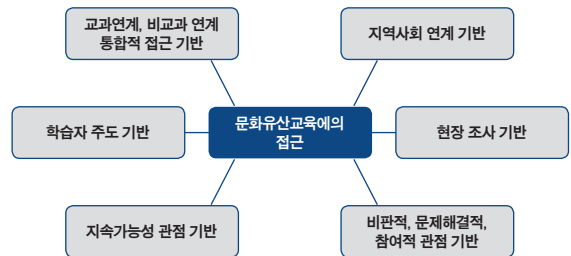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유산 교육에의 접근

1 허영훈(2019: 225-226)은 문화유산 교육 개념을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학습’과 ‘문화 행하기’ 학습으로 이어지는 구도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문화 행하기’는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 문화유산 따라 배우기 등을 통해 학생들이 문화 창조와 의미 구성 과정을 경험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수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화유산을 보호·계승하기 위해 자신이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와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III. 문화유산 교육 현황 분석

#### 1. 문화유산 교육의 교육 과정 분석

##### 1) 분석 대상 교과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교육 과정을 무형 문화유산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문화유산 교육 과정 분석은 초등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국어·사회·음악·미술·체육 등 5개 교과에 한정하였다(표 2). 이 5개 교과는 문화유산 사례를 학습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 3~4학년군과 5~6학년군의 국어·사회·음악·미술·체육 교과에 포함된 문화유산 내용 추출을 위해 유네스코(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9a, 2019b)가 제시한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을 사용하였으며(표 3) 영역별로 분석한 내용을 참조·활용하였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적

표 2 분석 대상 교과서

교과명	분석 교과서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학기(가권/나권/국어활동), 3-2학기(가권/나권/국어활동)</li> <li>- 4-1학기(가권/나권/국어활동), 4-2학기(가권/나권/국어활동)</li> <li>- 5-1학기(가권/나권), 5-2학기(가권/나권)</li> <li>- 6-1학기(가권/나권), 6-2학기(가권/나권)</li> </ul> </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학기 사회, 3-2학기 사회, 4-1학기 사회, 4-2학기 사회, 5-1학기 사회, 5-2학기 사회, 6-1학기 사회, 6-2학기 사회</li> </ul> </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인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학기 음악, 3-2학기 음악, 4-1학기 음악, 4-2학기 음악, 5-1학기 음악, 5-2학기 음악, 6-1학기 음악, 6-2학기 음악</li> </ul> </li> </ul>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인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학기 미술, 3-2학기 미술, 4-1학기 미술, 4-2학기 미술, 5-1학기 미술, 5-2학기 미술, 6-1학기 미술, 6-2학기 미술</li> </ul> </li> </ul>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인정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학기 체육, 3-2학기 체육, 4-1학기 체육, 4-2학기 체육, 5-1학기 체육, 5-2학기 체육, 6-1학기 체육, 6-2학기 체육</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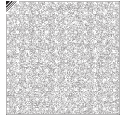
표 3 문화유산 내용(출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9a, 2019b)

내용 영역	설명
구전 전통과 표현	- 속담, 수수께끼, 이야기, 전설, 신화, 서사시, 노래, 시 등
공연 예술	- 음악(성악, 기악), 무용, 연극, 운문의 낭송, 무연극 등
사회 관습, 의례, 축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와 집단의 삶을 구조화하는 습관적인 활동</li> <li>- 소규모 집회에서부터 대규모 축제나 기념 행사 등 포함</li> <li>- 카니발과 새해를 기념하는 행사, 불의 시작, 수확의 마무리 등</li> <li>- 제사, 통과 의례, 출생, 혼인, 장례, 총성 서약, 전통 법체계, 전통 놀이와 운동, 의례상의 친족 의식, 정착 유형, 요리 전통, 절기 행사, 남녀 고유 관습, 수렵, 어로, 채집, 특별한 몸짓, 말, 낭송, 노래와 춤, 특수 의복, 행렬, 제물, 특별한 음식 등 표현물과 물리적 요소 등 포함</li> </ul>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가 자연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지식·방법·기술·관습·표상 등</li> <li>- 전통적 생태 관련 지혜·토착 지식, 지역 동식물에 대한 지식, 전통 치료 체계, 의례, 신앙, 성년식, 우주론, 사머니즘, 빙의(憑依) 의례, 사회 조직, 축제, 언어, 시각 예술 등</li> </ul>
전통 공예 기술	- 도구, 옷과 보석, 축제와 공연 예술용 의상 및 소품, 저장 용기, 저장 도구, 수송 수단 및 은신처, 장식 예술과 의례 용 물건, 악기, 가구, 오락 및 교육용 장난감 등 수많은 전통 공예 표현물

전통에 근거한 모든 것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의 개념을 ‘조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유형·무형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제시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였다.

#### 2) 교과별 문화유산 내용 분석

교과별로 문화유산 내용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았다(표 4). 먼저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구전 전통과 표현,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등 네 가지 영역이다. 구전 전통과 표현에서는 전래 동화, 설화, 구전 동요, 시조, 토박이 말, 속담, 관용 표현 등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언어와 문자로 표현된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3~4학년군에서 5~6학년군까지 해당 내용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에서는 전통 놀이 및 세시풍속 관련 내용을 담고 있고,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에서는 과거의 천체 기구, 기후 환경에 따른 가옥의 제작,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에 따른 생활 모습 형성 사례를 제시하며, 전통 공예 기술에서는 장신구,



장승, 민화 등의 소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어 교과와 교육 목표 도달을 위한 것이지만 관련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어 교과 학습을 통해 '구전 전통과 표현'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의 문화유산을 접하고 학습할 기회를 얻고 있다. 특히 3~4학년군에서 5~6학년군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접하고 학습할 수 있다.

사회 교과서는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의 문화유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3~4학년군에서는 문화유산의 내용과 정의가 무엇이며 이러한 문화유산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련성을 가졌는지를 학습한다. 더불어 문화유산의 세부 영역별로 관련 사례를 학습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고장에 대한 학습, 우리 지역에 대한 학습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앞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국어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사회 교과서에서는 사회과 학습 내용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문화유산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음악 교과서는 주로 '공연 예술' 영역의 문화유산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국악, 농악, 판소리, 민요 등 다양한 전통 음악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문화유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유산을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학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미술 교과서는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의 문화유산 사례들을 포함한다. 다른 교과와 달리 학습자가 문화유산을 경험하게 하고 경험한 것을 미술로 표현하게 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어·사회 교과서에서 문화유산의 내용을 파악하는 학습으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학습자가 경험한 문화유산을 표현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 공예 기술' 영역에서는 다른 교과보다 더 다양한 공예 기술을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국어 교과서는 '구전 전통과 표현'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교과서는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영역을 중심으로, 음악 교과서는 '공연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미술 교과서는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된 것과 달리 체육 교과서는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영역의 무형유산 사례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사회 교과서는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중에서 세

표 4 초등 5개 교과서에 포함된 문화유산 내용 특성 분석

교과	문화유산 내용 특성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전 전통과 표현,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li> <li>• 특히 구전 전통과 표현,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의 비중이 높음.</li> <li>•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영역별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국어과 학습을 위한 자료로서 무형 문화유산 사례를 활용함.</li> </u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 문화유산의 의미를 학습함.</li> <li>• 우리 고장,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li> <li>•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li> <li>• 특히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영역의 비중이 높음.</li> <li>• 주로 3~4학년군에 문화유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li> <li>• 무형 문화유산 자체의 내용 이해, 고장 및 지역의 역사와 생활 모습의 관련성이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li> </ul>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예술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학년군에 따라 각기 다른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다만 '강강술래'는 3~4학년군, 5~6학년군 모두에 포함되어 있음.</li> <li>• 각각의 공연 예술 사례를 알아보고 노래로 표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학습 후 사회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li> </ul>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특히 전통 공예 기술 영역의 비중이 높음.</li> <li>• 학년군에 따라 각기 다른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다만 한지 공예는 3~4학년군, 5~6학년군 모두에 포함되어 있음.</li> <li>• 주로 5~6학년군에 문화유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li> </ul>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li> <li>• 전통 놀이를 제외하면 5~6학년군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룸.</li> <li>• 무형 문화유산 사례들의 표현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둠.</li> <li>• 실제 생활에서 관련 유산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li> </ul>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교과서 안에 문화유산 5개 영역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개 교과를 통해 문화유산 5개 영역의 교육이 가능함을 의미함.</li> <li>• 교과별로 비중 있는 영역이 다름. 국어과에서는 '구전 전통과 표현'을, 사회과에서는 무형 문화유산 의미와 세시풍속 위주의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를, 음악과에서는 '공연 예술'을, 미술과에서는 '전통 공예 기술'을, 체육과에서는 전통 놀이와 무용 중심의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를 주로 다룸.</li> <li>• 교과별로 문화유산에 접근 방식에서 차별성을 보임. 국어과에서는 국어 학습을 위한 자료 제시, 사회과에서는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학습과 고장 및 지역의 역사와 생활 모습 간의 관련성, 음악·미술·체육과에서는 문화유산 사례 자체의 기능과 표현력으로 접근함.</li> <li>• 문화유산 학습 유형과 관련하여 모두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에 중점을 둬. '문화유산을 위한 학습', '문화유산을 통한 학습', '문화유산에 의한 학습'을 포함하는 교과 연계 학습으로의 확대 적용이 요구됨.</li> </ul>



시풍속에 중점을 두고 전통 놀이를 소개한 반면, 체육 교과서는 전통 놀이의 기법 자체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 교과서는 전통 놀이에 대한 소개에 한정했으나, 체육 교과서는 전통 놀이 자체를 배우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실생활에서의 적극적 활용도도모하고 있다.

5개 교과서에 포함된 문화유산 관련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찾을 수 있다(표 4). 첫째, 2015 개정 초등 교육 과정에 의해 제작된 5개 교과서는 영역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5개 영역의 문화유산 사례들을 두루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국어 교과서는 5개 영역 모두에 걸쳐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연속적으로 관련 문화유산 사례를 학습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초등 교과 학습을 통해 무형유산의 5개 영역 사례에 대한 학습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충분히 교과 연계 문화유산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5개 교과를 통해 교과별로 다양하게 문화유산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어·사회 교과를 통해 내용 중심의 문화유산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이 이뤄진다면 음악·미술·체육 교과에서는 문화유산 사례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사회 교과 학습에서 획득한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은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앞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토대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음악·미술·체육 교과에서 학습한 표현 기술 학습은 실생활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5개 교과서 모두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초등 교과 학습에서 문화유산 학습은 문화유산 사례 각각에 대한 지식과 표현 방법 획득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역량에 기반하여 '문화유산을 위한 학습', '문화유산을 통한 학습'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면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시민성, 인권, 평화, 환경, 지속 가능 발전, 문화 다양성 교육 등과의 연계는 제한적일 수 있다.

넷째, 문화유산 내용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내용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교과 교육이 문화유산 교

육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과 교육 과정에 포함된 문화유산이 적정하게 교육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교 교실 수업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요약하면 초등 교과 수업을 통해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사회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전통 공예 기술 등 문화유산의 5개 영역을 모두 습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유산 교육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의제와 관심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법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문적 관심이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문화유산 교육의 심화 발전을 위한 필요성은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 2. 문화유산 교육 경험 교사의 설문 응답 내용 분석

설문 응답 내용 분석은 교사가 행했던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이해, 문화유산 교육 방식, 문화유산 교육의 장애 요인, 문화유산 교육에의 의지,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제언 등 6개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5). 본 설문에 응답한 10인의 교사는 모두 2021년 8월 현재 1~2회 이상의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5회 이상 경험한 교사도 4명 있었다. 문화유산 교육 경험은 주로 초등학교 3~4학년군 사회 수업에서 지역 사회 및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재 수업 시간에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미술·실과·국어·음악 등의 교과에서 관련 내용 교육 경험, 그리고 문화유산 관련 중점 학교·연구학교·시범학교 운영 학교에서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10명 중 2명을 제외한 8명은 지역 사회 문화유산 교육, 특히 전통 놀이, 지역 의례 및 축제 행사 같은 문화유산 교육에 익숙하다고 답변했다. 문화유산 교육 유형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 이해 교육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유산 활용 학습 주제, 문화유산 보호와 실천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문화유산 교육을 위



한 자료는 주로 문화유산 전문 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했고, 도서관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였다. 수업 진행 방식에서는 학생 중심의 조사 및 탐구 활동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교사 중심의 내용 전달 수업, 지역 사회 관계자 초청 수업, 팀 티칭 등을 활용했다.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이해와 관련된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 설정에서 '인류 문화의 다양성 인식, 존중, 실천'과 '민족문화 계승과 발전의 필요성 및 방법', '우리 문화의 우수성 전달과 인식'에 각각 6인, 5인, 2인이 응답하였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을 '인류 문화의 다양성 이해'와 '인류가 공유해야 할 문화적 자산', 그리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 함양'과 '우수한 한국 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교육 목표를 둔다고 응답했다. 교육에서 세계 문화유산과 한국 문화유산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을 동등한 비중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절반 이상의 교사가 동의했다. 그리고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비중에 대해서는 유형유산 중심, 무형유산 중심 교육에 각각 4인, 3인의 교사가 응답하였으며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문항에도 3인이 동의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형태를 볼 수 있는 유형유산 중심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과 무형유산은 일상생활보다 교육을 통해 주로 접근될 수 있어서 더 중요하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초등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의의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보면 문화유산이 개인을 사회와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문화유산 교육은 학습자가 인류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 함양, 전통 문화의 우수성 체험, 문화 다양성 인식, 세계 문화 공유의 가치 이해와 실천 등에서 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문화유산 교육 실행 방식 측면을 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현행 사회 교과 3~4학년군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국어·미술·음악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부분을 연계하여 실시하는데, 학교 차원의 문화유산 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환경 교육 등과 연계하여 자유 주제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7명 이상의 교사가 설명식 및 강의식 수업, 대집단/학급 학생 전체 대상 수업, 프로젝트 학습, 현장 체험 학습을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실시 빈도가 높았다. 반면 토의 및 토론식 수업과 소집단 수업은 실시 빈도가 보통 이하로 낮았다. 문화유산 수업 자료는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사진, 그림, 지도 등, 국가별 전통문화 자료, 영상 자료, 인터넷 검색 등이 활용 빈도가 높은 반면, 참고 도서, 문화 관련 실물 자료, 현장 체험 자료 등은 활용 빈도가 낮았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 내용 교육에 주로 활용되지만, 그 외 자료들에는 활용 빈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교사 입장에서는 적정 자료 검색과 획득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문화유산 교육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교사가 문화유산의 의미와 문화유산의 사례에 대한 지식 부족,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 및 방법 설정에 대한 지식 부족, 문화유산 교육의 패러다임, 즉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문화유산을 통한 교육-문화유산을 위한 교육 등의 문화유산 교육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문화유산 수업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및 준비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일부 교사들은 문화유산 교육 목표 설정, 문화유산 교수-학습 방법 설정, 문화유산 교육과 교과·비교과의 연계, 문화유산 수업안 작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향후 문화유산 교육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해 교사 대부분은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특정 단원이나 특정 시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과정 형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화유산 수업 관련 연수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문화유산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 제고,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내용·방법을 포함한 문화유산 수업 전문성 신장 등이라고 제안했다.

표 5 문화유산 교육 경험 교사 대상 설문 내용

영역	설문 문항
문화유산 교육 경험	수업 경험 빈도
	수업 경험 배경
	문화유산 교육의 익숙함 정도
	문화유산 교육의 내용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자료 획득 방법
	문화유산 수업 진행 방식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이해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 설정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
	세계 문화유산 교육에서 다른 나라 문화유산 교육의 필요성
	문화유산 교육에서 세계 문화유산과 한국 문화유산의 비중
	초등 문화유산 교육에서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의 중요성
	학교 소재 지역의 무형유산 인식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교육적 효과
문화유산 교육 방식	문화유산 교육 실행 방식
	문화유산 교수·학습 방법
	문화유산 교육 활용 자료
문화유산 교육 장애 요인	문화유산 교육 실행의 장애 요인
문화유산 교육에의 의지	향후 문화유산 교육 실행 의지
	문화유산 교육 실행 필요성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제언	문화유산 교육 실행 방식
	문화유산 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 요청 사항

## IV.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 제언

### 1. 문화유산 교육 현황의 특성

초등학교 문화유산 교육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문화유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별로 주로 포함하

고 있는 문화유산의 영역은 다르지만 각 교과별로 또는 교과 간 통합적 방법을 통해 문화유산의 영역들을 교육할 수 있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 문화유산 교육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가 계승·발전되기 위해서는 교과별로 포함된 내용의 적정성과 주제에 더 적합한 문화유산 내용 선정, 교과 간 문화유산 교육 내용의 연계성 확보, 그리고 문화유산 교육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초등 교육 현장에서 문화유산 교육은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국어·사회·체육·음악·미술·실과 등의 교과 학습에서 이뤄지고 있기도 하지만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등 비교과 영역과 연계하여 행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문화유산 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형태로 문화유산 교육을 행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 교사들은 문화유산 교육에 대해 일부 익숙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지역 사회 전통 놀이, 축제 등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교육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들 간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내용 면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목표에 대한 인식에서는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필요성' 측면과 '인류 문화의 다양성 인식·존중·실천' 측면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우수한 한국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두고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과, 인류 문화의 다양성 파악과 이해에 목적을 두고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로 양분되어 있었다. 특히 후자에 중점을 둔 교사들은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지구상에서 공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문화유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세계 문화유산과 한국 문화유산의 활용 비중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을 동등한 비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사가 10명 중 5명, 한국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교사는 5명으로 반반이었다. 따라서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시사점이다.

넷째, 문화유산 교육의 수업 방식은 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서·사진·그림 자료 등을 활용한 설명식·강의식 수업이었다. 이는 교과별로 교육 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내용에 의해 문화유산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즉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은 주로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 문화유산을 위한 교육, 문화유산에 의한 교육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교사 연수와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 지원을 언급하였다. 절반 이상의 교사는 문화유산의 의미와 사례 지식,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와 방법 설정에 대한 지식, 문화유산 교육의 유형과 접근 방식에 대한 지식, 문화유산 수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수집 방법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문화유산 교육은 교과 교육과는 다른 특수 분야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는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대부분 교과들은 그 자체의 교육 과정을 갖고 있어서 교사가 교육 과정의 목표·내용·방법을 활용하여 수업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문화유산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이 없으므로 어떤 목표·내용·방법을 활용해야 할지 교사들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개인적 관심과 판단만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연구와 수업 관련 자료를 학교 현장에 제공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다.

여섯째, 문화유산 교육 실행에 대한 교사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는 게 설문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앞으로 문화유산 교육을 실행하겠다는 의향에 대해 모든 교사는 적극적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문화유산 교육은 학생들

에게 흥미 있는 소재일뿐더러 사회의 역사·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모든 교과와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특성이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 세계 시민, 문화 다양성 존중, 국가의 정체성 인식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문화유산 교육을 특정 단원으로 설정하거나 특정 시간에 한정하기보다는 교과 및 비교과 연계를 활용하여 교사가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2.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 제언

문화유산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능력·가치·지혜 등 삶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독특한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왔다. 다양한 문화 공동체는 세계의 여러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독창성을 구현해왔을 뿐 아니라 인간의 교류와 혁신과 창조에 영향을 주었다. 문화유산은 지역별 독창성을 보여주면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향유하고 전승해야 할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유익한 자산이며 혜택으로 인식되어야 한다(UNESCO 2001). 따라서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은 교육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조사·분석한 초등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 현황에 기반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을 시민성 함양으로 확대해야 한다. 모든 교육은 그 목적에서 출발한다. 무엇을 위해 교육을 실행하는 것인가는 교육의 대상·시간·내용·방법을 설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관련하여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적 사실 인식을 포함한 학문적 목적,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보호적 목적,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비판적 시민성 함양 등이 필요하다(Giménez et al. 2008: 2098). 민족이나 국민 국가 단위의 문화유산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문화유산을 특정 국가나 민족의 소유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인류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류 문화의 발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한건수 2020: 259).

현행 초등 교육 과정 내용을 분석해보면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을 '우리 문화의 자긍심 함양', '한국 문화의 우수성 전달' 등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의식 함양에 두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간 문화유산 교육이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획득' 차원의 목적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을 문화유산 보호·계승을 위한 시민성 함양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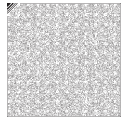
둘째, 문화유산 교육의 내용과 소재를 발굴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재고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범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문화유산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화유산을 결정할 때 그 이유와 의미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한국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문화유산의 세부 영역들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유산에 포함된 내용은 주로 공예품이나 공연 예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전 전통, 사회 관습, 전통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배제되거나 약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사 대상 설문 응답에서 교사들은 문화유산 교육에서 한국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유산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10명 중 3명은 '한국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야 함'에 응답하였고 동등하게 해야 함에 6명이 응답하였다. 교사들이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을 상이하게 수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국제 사회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와 가치를 우리의 교육 과정이나 교사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

과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이를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어떤 문화유산을 가르쳐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이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 발전과 연계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 지역별 정체성, 문명 간 대화와 이해, 창조성의 원천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지속 가능 발전의 토대가 된다. 문화유산은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유산이며 과거에서 현재·미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의 틀에서 지속 가능 발전과 연계하여 다면적인 접근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의 교과로 설정하거나 하나의 단원으로 설정하여 교육하는 것보다는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또는 비교과 영역에서 주제 학습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넷째,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단계별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의 성패는 교사 연수에 달려 있다. 문화유산 교육은 교과 교육이 아니고 범교과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사례로 무엇이 있는지에서부터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교과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비교과 영역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등 문화유산 교육 전반에 대한 교사 연수가 절실하다.

이는 교사 설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필요성과 향후 실행 의지에 대한 인식은 아주 높다. 대신 문화유산의 목표와 방법, 관련 자료 수집 등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세계 시민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등과의 연계 방법,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교사 스스로 교과 영역에서 문화유산 교육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교안으로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부



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문화유산 교육이 교과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별도의 교육으로 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장 교사 대상 연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라 하겠다.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폭과 깊이만큼 교사 대상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의 역량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이어지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문화유산 교육을 교육 과정에 통합하는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 Banks(2008)는 다문화 교육의 교육 과정에의 통합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기여적 접근, 부가적 접근, 변혁적 접근, 의사 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 등 4단계를 제시하였다. 개별적인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학습 주제의 사례로 문화를 활용하는 기여적 접근에서 교과 과정의 주요 내용·개념·주제로 포함시키는 부가적 접근, 교육의 목적에 기반하여 교육 과정의 내용과 기준을 적용하는 변혁적 접근,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의 목적에 기반하여 직접 의사 결정, 시민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접근 방식을 이행함으로써 교육이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교육도 다문화 교육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UNESCO 2015). 이 접근 방식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은 기여적 접근과 부가적 접근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겠다. 학습자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향유하고 보호하고 지속 가능 발전 사회와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교육을 교육 과정과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초등 교육에서 문화유산이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는 문화유

산 교육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통해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을 제언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개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문화유산 교육 경험이 있는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교사의 경험과 의견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문화유산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유산 교육을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능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문화유산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문화유산 교육의 목표를 지속 가능성 관점에 기반하여 시민성 함양으로 확대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과별 교육 과정이 포함하고 있는 문화유산 사례는 교과별로 내용 영역이 다르다. 또한 교육 과정에 포함된 문화유산 사례는 문화유산 영역들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교과 학습을 위해 필요한 사례를 선정하는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학습'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는 문화유산 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와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유산 교육은 교육의 목적을 확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최근 학계의 연구 결과, 학습자의 비판적 시민 의식 함양, 지속 가능성의 관점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에 포함되는 문화유산의 내용 선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교과서에 포함된 문화유산 사례는 체계적 일관성이나 필요성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에 맞는 사례 위주로 채택된 경향이 높다. 문화유산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경제·사회에 내재되어 있고 그 가치를 드러내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그 범위는 넓고 세부 영역도 다양하다. 그런 만큼 적절한 내용 선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교육 과정 분석과 교사의 설문 응답에 의하면 문화유산으로 포함된 내용은 공예품이나 공연 예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구전 전통, 사회 관습, 전통 지

식과 기술에 대해서는 배제되거나 약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 생활 및 수준과의 연계성,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교육적 가치, 그리고 교과와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 선정·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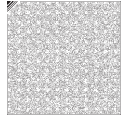
셋째, 문화유산 교육에의 접근은 다면적이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은 주로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과거 문화재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과 조상의 지혜를 학습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교육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문화유산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더 폭넓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 '문화유산을 위한 교육', '문화유산에 의한 교육' 등으로 확장될 때 문화유산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입지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 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시민성 함양에의 기여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 교사는 문화유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수업에서의 실행 의지도 매우 높다. 그러나 교사들의 열정을 지원해주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자료 제공은 부족한 상황이다.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 역량에 맞춰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의 문화유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유산 교육은 장기적으로 교육 과정에의 통합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유산 교육은 이미 초기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문화재 교육'으로 도입되어 실시되어왔다.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특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화재로 학습되어온 것이다. 이젠 '문화유산 교육'으로 진화했다. 문화유산에 대한 기념비적·상징적 관점에 역사적·심미적·지속 가능성 관점 등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지속 가능성의 토대로 대상화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문화유산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에 통합하여 이에 대한 시민성 함양 차원의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문화유산

에 대한 교육,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획득을 넘어 문화유산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향유하고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유산으로 전승해줄 수 있는 시민성 함양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화하여 교육 과정에의 통합 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는 상호 의존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의 주력으로 등장할 가까운 미래에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세계화와 '지구촌' 사회가 갖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에의 관심과 이에 대한 시민성을 촉구한다. 문화유산은 그간 인류가 환경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획득한 지혜와 그 지혜가 만들어낸 생활 방식과 가치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지속 가능 사회 구축에 유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문화유산 교육은 학교 교육 과정과의 통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의 변화가 요청된다. 더 늦기 전에 문화유산의 교육적 가치를 찾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김용구, 2018, 「문화유산 교육의 전개과정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의 부상」, 『문화재』 51(2), pp.154~169.
- 김행심, 2010,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통 문화 교육의 일고찰」, 『중앙민속학』 15, pp.173~201.
- 노경민, 2020, 「문화유산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7(2), pp.57~68.
-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 문화재청, 2010, 『문화유산 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기초 연구』.
- 문화재청, 2018, 『2018 지역 문화유산 교육 가이드북』.
- 문화재청, 2020, 『문화유산 현장』.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9a, 『무형 문화유산 관련 초등 융합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2019b, 『무형 문화유산의 이해』.
- 이노은, 2011, 「박물관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15, pp.27~48.
- 이연수·김종아, 2014, 「어린이와 문화유산 교육 - 문화 다양성 교육 형태 및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박물관교육연구』 12, pp.35~60.
- 이지혜·김정화, 2018,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pp.41~51.
- 이현경·손오달·이나연, 2019,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 한국의 문화재 개념 및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및 비판」, 『문화정책논총』 33(3), pp.5~29.
- 한건수, 2020, 「세계 시민성의 보편 가치와 문화 다양성」, 『한국 세계 시민 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살림터, pp.237~264.
- 허권, 2012, 「세계유산의 국제 이해 교육으로의 가치」, 『국제이해교육연구』 7(1), pp.1~37.
- 허영훈, 2019,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초등학교 문화유산 학습의 실제 : <안성의 문화유산 PR 대작전> 수업을 사례로」, 『역사 교육연구』 33호, pp.211~274.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Allyn & Bacon.
- Barghi, R., Zakaria, Z., Hamzah, A., Hashim, N. H., 2017, 'Heritage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 Standard Curriculum of Malaysia',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61, pp.124~131.
- Copeland, T., 2004, 'Heritage and Education : A European Perspective', *The Hague Forum 2004*, pp.18~22.
- Estepa, J., Wamba, A. M. & Jime'nez, R., 2005, 'Fundamentos para una ense'anza y difusio'n del patrimonio desde una perspectiva integradora de las ciencias sociales y experimentales', *Investigacio'n en la Escuela* 56, pp.19~26.
- Gime'nez, J. E., Ruiz, R. M. & Listan, M. F., 2008, 'Primary and Secondary Teachers' Conceptions about Heritage and Heritage Education : A Comparative Analysi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 pp.2095~2107.
- Merillas, O. F. & Rodriguez, M. M., 2018, 'An Analysis of Educational Design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grammes : the Case of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3, pp.189~202.
-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UNESCO, 2002(1998), *World Heritage in Young Hands Kit : to Know, Cherish and Act*, Paris: UNESCO.
- UNESCO, 200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7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179&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접속일: 2021.8.30)



참고문헌

-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2<sup>nd</sup>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 Paris, 29 September~17 October.
- UNESCO, 2015, *Learning with Intangible Heritage for a Sustainable Future*, UNESCO Bangkok Office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번역, 2019,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형유산 학습 아태 지역 교사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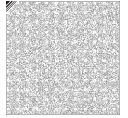
<사용 교과서>

[국어]

- 교육부, 2018, 『국어 3-1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 3-1 (나)』,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활동 3-1』,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 3-2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 3-2 (나)』,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활동 3-2』,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 4-1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 4-1 (나)』,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활동 4-1』,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 4-2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 4-2 (나)』, (주)미래엔.
- 교육부, 2018, 『국어활동 4-2』,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5-1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5-1 (나)』,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5-2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5-2 (나)』,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6-1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6-1 (나)』,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6-2 (가)』, (주)미래엔.
- 교육부, 2019, 『국어 6-2 (나)』, (주)미래엔.

[사회]

- 교육부, 2018, 『사회 3-1』, 지학사.
- 교육부, 2018, 『사회 3-2』, 지학사.
- 교육부, 2018, 『사회 4-1』, 지학사.
- 교육부, 2018, 『사회 4-2』, 지학사.
- 교육부, 2019, 『사회 5-1』, 지학사.



## 참고문헌

- 교육부, 2019, 『사회 5-2』, 지학사
- 교육부, 2019, 『사회 6-1』, 지학사
- 교육부, 2019, 『사회 6-2』, 지학사.

### [음악]

- 양종모·김은영·박진홍·박지영·김은주·윤해린, 2018, 『초등학교 음악 3』, 천재교과서.
- 양종모·김은영·박진홍·박지영·김은주·윤해린, 2018, 『초등학교 음악 4』, 천재교과서.
- 양종모·김은영·박진홍·김동희·박지영·이동희·김은주, 2019, 『초등학교 음악 5』, 천재교과서.
- 양종모·김은영·박진홍·김동희·박지영·이동희·김은주, 2019, 『초등학교 음악 6』, 천재교과서.

### [미술]

- 안금희·장지성·김선아·이선혜·구경주·이남근·박봉희·이정묘·이희욱, 2018, 『초등학교 미술 3』, 천재교과서.
- 안금희·장지성·김선아·이선혜·구경주·이남근·박봉희·이정묘·이희욱, 2018, 『초등학교 미술 4』, 천재교과서.
- 안금희·장지성·김선아·이선혜·구경주·이남근·이희욱·김종완, 2019, 『초등학교 미술 5』, 천재교과서.
- 안금희·장지성·김선아·이선혜·구경주·이남근·이희욱·김종완, 2019, 『초등학교 미술 6』, 천재교과서.

### [체육]

- 이대형·배문엽·고문수·전세명·안해룡·조해경, 2018, 『초등학교 체육 3』, 천재교육.
- 이대형·배문엽·고문수·전세명·안해룡·조해경, 2018, 『초등학교 체육 4』, 천재교육.
- 이대형·배문엽·고문수·전세명·안해룡·조해경, 2018, 『초등학교 체육 5』, 천재교육.
- 이대형·배문엽·고문수·전세명·안해룡·조해경, 2018, 『초등학교 체육 6』, 천재교육.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primary school

## Focused on curriculum analysis and teachers'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xperiences

**HAN Geonsoo** Professor,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IM Daw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veritas2@gnue.ac.kr](mailto:veritas2@gnue.ac.k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and suggest future improvement practices for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primary school. We analyzed a primary school textbook for each of five subjects (Korean, social studies, music, art, physical education), surveyed ten teachers with cultural heritage education experience, and analyzed the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we made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First, the goal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to foster citizenship. Second, in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educational content and to organize the content systematically in connection with the student environment, local community environment, and subject content. Third, cultural heritage education should be linked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at cultural heritage can be passed on from the present generation to future generations. Cultural heritage has characteristics, such as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that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regional identities, dialogue and understanding between civilizations, and sources of creativity, and thus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urth,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schoo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ep-by-step teacher training programs. The success or failure of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n schools depends on teacher training. Fifth, the degree to which cultural heritage education is integrated into the curriculum should be strengthened, allowing learners to be educated so that they can cultivate knowledge and critical thinking about cultural heritage, enjoy and protect it, and connect with a sustainable society.

**Keywords** Cultural heritage, World heritage, Cultural heritage edu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rimary education

Received 2021. 9. 9. • Revised 2021. 10. 19. • Accepted 2021. 10. 30.



